



맞은편 불광교육원 건물에서 바라본 불광사 신축법당 전경. 지상 4층까지는 현대 건축양식에 따라 대리석 건물로 꼭대기인 5층에는 전통양식의 대웅전을 올렸다. 지하 5층 포함 연건평 3000평 규모다.



불광사 중창불사에는 2만명이 십시일반의 힘으로 300억원을 모금했다.



이날 보광당에는 2000여 대중이, 대웅전과 만불전 등 각 법당을 통틀어 5000여 불자들이 운집했다.

“수행·포교·나눔정진...불국 이룰 터전일세”

10월 13일 불광사 중창불사 회향...5천 대중 운집

“은누리 모든 국토 불국 이룰 터전이며 형제와 이웃들은 문수 보현 화현이라. 구세 원력 함께 뭉쳐 불국토를 이룩하니, 아아아! 우리는 영원한 불광 불국의 역군이라.”

2000명을 수용하는 서울 잠실 불광사의 보광당이 보현행원을 서원하는 대중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도심포교의 성공적 모델인 서울 잠실 불광사가 중창불사 원만회 향식을 개최한 10월 13일 지하 대법당인 보광당, 지상의 대웅전, 만불전 등에는 5000여 대중들이 운집해 한마음으로 제2의 불광운동을 서원했다.

불교의 현대화·대중화·생활화를 기치로 한국불교의 새바람을 일으켰던 서울 잠실 불광사는 이날 신축법당 준공법회 및 회향식을 개최했다.

불광사 신축법당은 연건평 9664㎡(3000평)의 지상 5층, 지하 5층으로 현대 건축양식과 전통 불교건축양식이 어우러진 건물이다.

지상 1층에는 종무소 및 열린공간이, 2층에는 요사채, 3·4층에는 만불전과 시민선방, 5층에는 대웅전이 자리한다. 지하 1층에는 공양간과 수유실이, 지하 2층에는 유품전시실과 보광당 발코니가, 지하 3·4층에는 보광당이, 지하 5층에는 주차공간이 마련됐다. 지하3층의 발코니 석까지 보광당은 총 20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서울지역 최대 법당이다.

이날 신축법당 준공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대각회 이사장

도업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등 스님 300여 명과 前불광법회장 송석구 가천의 대 명예총장, 이형 불광법회장 등 대중 5000여 명이 참석했다.

모인 대중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이들의 마음은 모두 기복불교의 세태에서 수행과 포교, 나눔의 정진을 펼친 불광운동을 다시

광덕 스님 뜻이어 제2불광운동 교육원·문화원 지역에 개방

금 펼치는데 모아졌다.

이날 지홍 스님은 “1970년대 이후 한국 불교 대중화를 이끌었던 불광사의 중창 불사는 단지 건물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걸맞은 제2의 불광 운동을 시작한다는 의미”라며 “광덕 스님의 도심포교

개척정신을 이어 받아 지역사회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하는 중추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1982년 이곳에 자리한 불광사는 호법도량이자 선지식들이 모여 법석을 벌였던 곳”이라며 “그 역사를 불광대중이 이어 받아 삶에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불교의식에 이어 자심행 불광법회 부회장의 선창에 맞춰 모든 대중은 한 목소리로 서원했다.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해소돼 온누리에 불국토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구국 구세의 서원으로 끝없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김선학 거사는 “불광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내 삶이 먼저 변한

다는 것”이라며 “부처님의 빛을 전하는 불광의 길을 걸으며 도반들을 만나고 스님들을 뵈며 절로 신이 나고 함께 도반들로 인해 삶이 즐겁고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날 중창불사 회향식은 막을 내렸다.

한편, 불광사는 이날 법회에 이어 제2의 불광운동으로 교육문화사업을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현재 구축한 교육원과 문화센터를 지역사회에 개방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불광아카데미 사업도 진행한다. 특히 10월 19~20일 신축법당 보광당에서 ‘현대사회의 위기와 종교공동체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는 등 해외의 우수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는다. (학술포럼 본지 962호 B8면 게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모두가 불광사의 주인입니다”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



“앞으로 불광사는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의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불자들에게는 수행과 믿음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13일 “신축불사에는 불자 2만명이 십시일반의 힘을 보탤다”며 불광사 중창불사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2005년 10월 시작된 불광사 중창불사는 8년 동안 진행됐는데 불사비용 300억원을 순수 불자대중의 힘으로 진행했다.

“적게는 만원부터 많게는 역대 성금까지 모두가 ‘내가 불광사의 주인’이란 생각으로 동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도대중의 주인의식 덕분입니다. 이제 불광사는 신도와 우리 사회의 열린공간으로 새로운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스님은 “신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불교공동체로, 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공동체로 발전하도록 불광사, 불광회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도심포교의 선구자 광덕 스님의 바라밀 실천운동

한국 불교 도심 포교의 개척자로 꼽히는 광덕 스님(1927~1999)은 근현대 융성, 동산 스님 등의 대각 사상을 대중화한 선지식으로 추앙받고 있다. 1927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광덕 스님은 1952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출가한 이후 ‘반야바라밀’로 대표되는 기존 기복불교를 넘어 법(法) 중

심의 수행체계를 확립한 바라밀 실천운동을 펼쳤다.

광덕 스님은 그 실천정신 하에 일생동안 30여 권의 불서를 번역하거나 저술하기도 했으며 각종 찬불가를 작사하기도 했다. 광덕 스님은 1999년 2월 27일 문도들에게 ‘불광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유지를 남기고 입적했다.

240개 법등과 39개 지역구 법회로 구성된 ‘불광회’

불광사의 모태인 불광회는 광덕 스님이 1954년 부산에서 사랑방 법회를 여는 데서 시작했다. 1974년 광덕 스님은 서울 종로 대각사에서 불광회(佛光會)를 창립하고 정기법회와 함께 불교 교양지 월간 ‘불광’ 창간, 경전 한글 번역, 찬불가 제작, 사회봉사활동 등 한국불교의 영예를 넓혔다. 불광회는 1982년 서울 송파

구 석촌동에 불광사를 세운다. 불광회는 ‘구역’ 개념을 도입해 구역법회를 열었다. 불광회는 현재 2만여 명의 회원이 법등(法燈)이라는 지역조직 240여개에 속해 활동하고 있다. 먼저 39개 지역구 법회가 중심이 되며 하나의 구역법회에는 5~6개의 법등이 조직돼 있다. 각 법등을 넓혔다. 불광회는 1982년 서울 송파

의 신도들은 법등에서 함께 수행활동을 진행한다. 법등에서는 매월 한달에 한번씩 자체법회를 가정법회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또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경조사가 있을 때는 서로 돕는 등 유대관계를 지속해간다. 3개의 구역법은 거사들뿐만이 이뤄진 거사회이며 봉사활동을 전담하는 연화부와 보문부도 있다.

이밖에 호법회원이 따로 있다. 호법회원은 현재 4000여 명으로 평균 1만원 이상씩 호법 봉납금을 내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조 실 송원 설정
회 주 성광
주 지 수암

사 부 대 중 일 동

三角山華溪寺

주소 : 서울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번지 http://www.hwagyesa.org
☎ 02) 902-2663 / Fax : 990-1885

